

익숙함과 낯섬의 경계 너머 다시 '피플'이 되는 우리

ACC 주제기획전 '코스모 아시아 피플'...8월23일까지

'코스모', '아시아', '피플' 키워드...8개국 31개팀 참여 인간·비인간·타자 경계 오가며 새로운 공동체 의미 확장

전시장에 들어서면 '우주'라는 말은 밤하늘보다 낯선 존재들의 얼굴로 다가온다. 사람인지 동물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형상들이 뒤섞여 있고, 반짝이는 별이나 뿌리와 같은 조형물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정돈된 화이트큐브보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한 공간 안에서 공존하는 장면이 가까워 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오는 8월23일까지 복합전시 3·4관에서 선보이는 주제기획전 '코스모 아시아 피플: 행성 시대 피플을 재발명하기'는 5월 광주에서 다시 '피플'의 의미를 묻는 전시다.

전시에는 한국·일본·태국·싱가포르·인도·몽골·대만·말레이시아 아시아 8개국 31인(팀)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설치·영상·사운드·퍼포먼스 등 총 102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기후 위기와 전쟁,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시대 속 인간과 공동체를 다시 바라보는 전시다. '코스모'(Cosmo), '아시아'(Asia), '피플'(People)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전시장을 따라 걷다 보면 '피플'이라는 말은 어느 순간 인간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작품들은 인간과 자연, 공동체와 타자의 경계를 넘나든다.

전시장 입구에서는 이응노의 1970년대 작품이 관람객을 맞는다. 한지와 신문지 위에 그려진 형상들은 사람 같기도, 새 같기도 하다. 군중 속 개별자의 얼굴처럼 보이는 존재들은 익숙한 인간 형상에서 조금씩 벗어난다.

초반부에 놓인 싱가포르 작가들의 작업도 전시의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청수 피엡은 길게 늘어진 팔다리와 짙은 피부색의 인물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선주민 형상을 독자적인 조형 언어로 풀어낸다. 조르제트 첸은 승려와 상인, 공동체 인물들의 얼굴을 통해 다문화·다종교적 풍경을 담아냈고, 첸 청 메이는 여행 중 마주한 사람들과 풍경을 스케치와 사진으로 기록해 낯선 존재와의 조우를 회화로 확장했다.

'코스모 아시아의 자리' 섹션에선 조선 후기 천문도인 보물 '신·구법천문도'에 눈길이 간다. 전통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서양식 천문도 '황도남북양총성도'를 한 화면에 나란히 배치한 작품이다. 서로 다른 우주관이 한 화면 안에 놓여 있다.



'코스모 아시아 피플 : 행성 시대 피플을 재발명하기' 전시 전경

그 옆에 놓인 김아연의 설치 작업은 천문도의 풍경을 또 다른 감각으로 이어간다. 둥근 별 형태의 조형물은 가까이 다가가면 땅 아래 뒤엎킨 나무 뿌리 같아 보인다. 작가는 신·구법천문도 속 146개 별에서 모티브를 얻어 이를 146개의 뿌리처럼 풀어냈다.

안은미의 공간은 전시 분위기를 가장 강렬하게 환기하는 장소 가운데 하나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마네킹과 왕관, 꽃 장식, 낯선 가면들이 제단처럼 뻗어 있다. 반짝이는 장식들은 한눈에는 축제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묘한 긴장감이 감돈다. 무대 장식과 제의용 오브제가 뒤엎킨 공간은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5월 광주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도 있다. 윤형근의 1980년작 'Burnt Umber(다색)'이다. 윤형

근은 하늘과 땅, 그 사이의 문을 뜻하는 '천지문' 연작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기동처럼 선 형상들이 흔들리며 불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화면 안에는 상처와 존엄, 그리고 서로를 버티게 했던 감각이 함께 남아 있다.

후반부 섹션에서는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존재들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태국 작가 부수이 아자우는 미얀마·태국 국경지대 소수민족 아카인의 신화와 기억을 통해 국가의 경계 바깥에 놓인 삶을 이야기한다.

인도의 비렌더 아다브는 벽돌 가마 노동자들의 손과 발, 지문을 작업으로 가져온다. 주소조차 갖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신체는 붉은 벽돌처럼 굳어가고, 작가는 이들의 흔적을 통해 누가 공동체 안에 포함되고 배제되는지 되묻는다.

전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오면 '피플'이라는



안은미작 '동방곡곡아시아사람'

말은 더 이상 익숙한 공동체의 이름으로만 남지 않는다. 사람과 동물, 현실과 신화, 중심과 주변이 한 공간 안에 뒤섞이며 지금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글·사진=최명진 기자

절제된 선·색으로 풀어낸 삶의 균형

임희정 개인전 '검이불루 화이불치'...오는 7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삶의 선택과 시간의 흐름을 절제된 조형 언어로 풀어낸 전시가 열리고 있다.

오는 7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열리는 임희정 작가 개인전 '검이불루 화이불치' (儉而不陋 華而不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구축해온 조형 세계를 바탕으로 삶의 균형과 시간에 대한 사유를 담아낸 자리다.

작가는 직선과 곡선, 선과 면의 관계를 통해 지나온 시간과 경험의 흔적을 화면 위에 시각화한다.

특히 화면을 가로지르는 굴곡진 선들은 선택과 고민이 교차하는 삶의 흐름을 상징한다. 흔들림과 망설임의 시간을 조형적으로 드러내며, 삶의 과정 속에서 마주하는 감



'Attention II'

정의 걸을 담아낸다.

전시에서 눈길을 끄는 지점은 작가가 제안한 색채 개념인 '파비드(Pavid)'다. 부드러운 파스텔(Pastel)과 선명한 비비드(Vivid)를 결합한 개념으로, 상반된 색감이 만들어내는 조화를 의미한다. 선이 삶의 흐름을 구성한다면 색은 시간의 온도와 감정의 리듬을 더한다.

작가는 이러한 색채 대비를 통해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의 고전 미학 '검이불루 화이불치'를 현대적으로 풀어낸다.

절제된 파스텔톤 위에 비비드한 색채의 생동감을 공존시키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을 제시한다. /최명진 기자

나빌레라 무용단, 광주무용제 대상 수상

전국실용무용챔피언십 대상에는 '청량'

(새대안무용협회 광주시지회(광주무용협회)가 주관하는 제35회 광주무용제 대상에 나빌레라무용단의 '하얀 그림자...' (사진)가 선정됐다.

단체부문 대상은 나빌레라무용단(안무 한명선)이 수상했으며, 연기상은 나빌레라무용단 임종근에게 돌아갔다.

올해 처음 신설된 전국실용무용챔피언십 부문에서는 '청량'(안무 김상균)이 대상을 수상했다. 두 단체는 오는 10월 열리는 제35회 전국무용제와 제1회 전국실용무용챔피언십에 광주대표로 출전한다.

대상작 '하얀 그림자...'는 인간 내면의 상처와 화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한 창작 작품이다. 작품은 '두아'와 '보니'라는 상징적 존재를 통해 인간이 외면해 온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서사적으로 풀어냈다.

심사위원들은 "무대연출과 안무, 무용수, 조명, 음악 등이 조화를 이루며 작품 구성과 주제 표현이 뛰어났다"며 "주제에 어울리는 무대 연출과 무용수들의 테크닉이 돋보인 작



품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광주무용제에는 대상작 외에도 댄스컴퍼니 Sun&Friends의 'Body in Motion', 프로젝트M의 'vacuum, seven' 등이 참가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오윤환 지회장은 "나빌레라무용단의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광주 무용계를 빛내기에 충분한 작품인 만큼 전국무용제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묘 이강 · 개강

가족묘 조성 / 개강 / 묘지이강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강 전문 ☎ 문의) 062-464-3466